

비장애대학생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서 보 순**

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박 재 국***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대학생들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유형을 Q-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장애대학생에 대한 비장애대학생의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고, 대학에서의 의미 있는 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시의 6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76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장애대학생에 관한 진술문들의 동의수준을 분류하도록 하고, 응답 결과를 QUANL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되었으며, 각 유형은 '저력 인정형', '고충 우려형', '보편성 주목형', '온정적 지원 촉구형'으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는 비장애대학생들에게 장애대학생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대학에서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통합에 대한 실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Keywords :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 비장애대학생들의 인식, Q-방법

* 이 연구는 2014년 부산대학교사범대학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sbsboss@hanmail.net)

*** 교신저자 (pjk006@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대학진학은 장애인의 정서적 안녕감, 대인관계, 자기결정을 포함한 삶의 만족도 증진과 관련이 깊으며, 진로 개발 및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Hughson, Moodie, & Uditsky, 2006; Kleinert, Jones, Sheppard-Jone, Harp, & Harrison, 2012).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교육부(2014)가 발표한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15.9%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바로 진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 확대와 교수자료 제공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특별전형 입학제도를 도입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교육부, 2014). 이는 장애인의 고등교육의 기회가 실제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학에서의 통합교육 실현을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실제로 학업과 대학생활에서 제약 없이 접근하고 의미 있게 참여한다고 여기기는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에게 대학생활을 저해하는 여러 난관이 지속되고 있음(이은진, 유성경, 2011)이 거론되고 있다. 장애대학생들은 차별을 겪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인식하기도 하고(석말숙, 강동욱, 2005; 이옥경, 2004), 불안감, 우울,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며(김자경, 강혜진, 2008; 장순욱, 2001; 조화진, 서영석, 2010), 대학에서의 일상생활과 학업수행에 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영, 남진열, 2005; 석말숙, 강동욱, 2005; 이옥경, 2004). 특히 장애대학생들의 적응 문제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즉 선후배 및 학우들과의 만남 기회 부족, 긍정적 관계 형성 미흡,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낮은 지각을 언급하고 있다(김미선, 박중휘, 2013; 이웅, 이주희, 이한나, 2011; 이정애, 최용용, 2010).

우리나라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집합주의적인 문화의 특성을 가지며(김명소, 한영석, 2006), 사람들은 관계를 중심으로 한 경험들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행복 혹은 불행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구재선, 김의철, 2006).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도 대인관계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최지영(2009)은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즐거움을 통해 적응해나가지만, 소외감,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등은 심리적 위축을 유발하고 소극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적응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이은진과 유성경(2011) 역시 관계경험과 성취가 장애대학생이 장애로 인한 난관을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고 하였다. 또 이경림과 박재국(2007)은 장애대학생에게 친구가 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웅 등(2011)은 학교구성원의 배려와 사회적 지지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장애대학생은 장애대학생과 든든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회적 지지원으로 기능할 수도,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존재이다. 통합교육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효과적인 사회적·기능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대학생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학업을 수행해나가는 비장애대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박재국, 2008; Hergenrather & Rhodes, 2007; May, 2012). 비장애학생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에서는 비장애대학생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태도(김진영, 남진열, 2005; 박재국, 2008; Griffin, Summer, McMillan, Day, & Hodapp, 201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김미옥, 2003; 정혜영, 서보순, 2012), 장애인에 대한 인식(김기홍, 2006; 송수지, 김정민, 2008) 등을 주제로 하였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이라 보고하기도 하였지만(김진영, 남진열, 2005; Griffin et al., 2012), 일반적인 영역보다 더 가까운 친구관계로 좁혀 들어가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김진영, 남진열, 2005), 인지적 태도, 행동적 태도보다 감정적 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재국, 2008), 대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김기홍, 2006) 연구결과들도 소개된 바 있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인식을 다룬 연구가 적지 않았지만, 그간의 연구는 연구자가 제시한 항목에 대한 인식 정도를 양화하거나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양적 연구(김진영, 남진열, 2005; 박재국, 2008; 이정애, 최용용, 2010; 이웅 외, 2011; May, 2012)에 집중되어 있었다. 비장애대학생들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연구(서보순, 김자경, 신혜정, 2014)에서 장애대학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측면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비장애대학생의 심층적 인식에까지 연구의 범위를 넓히지는 못하였다. 한편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질적으로 살핀 연구들은 장애인대학생의 관점에서 적응과정이나 그에 따른 어려움을 밝혀내는 연구들(김미선, 박중휘, 2013; 이은진, 유성경, 2011; 한경임, 송미승, 2011)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모두 의미있게 참여하는 통합이 고등교육에서도 실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이 함께 고려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동향은 장애대학생에 초점을 두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거나 비장애대학생이 가지는 일반적인 인식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하기에 비장애대학생들이 장애대학생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인식을 세밀히 고찰하여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장애대학생과 원활히 소통하고 학업에 참여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비장애대학생들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며, 각 유형이 가지는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장애

대학생에 대해 유사한 인식경향을 가지는 비장애대학생들의 인식을 유형별로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그들이 장애대학생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장애대학생들에게 장애대학생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에서의 통합교육에 대한 반성과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이끄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대학생들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비장애대학생들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Q-표본

1) Q-모집단

본 연구에서는 Q-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브레인스토밍법을 활용하여 Q-진술문을 확보하였다. B시의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150명의 비장애대학생들에게 장애대학생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개방형 질문지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진술문은 168개였다.

2) Q-표본 선정

연구자들은 비장애대학생들이 제시한 진술문들을 내용의 대표성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읽고, 유사한 용어의 통일과 문법적 오류 수정의 과정을 거쳐 64개의 진술문으로 정리하여 1차 표본을 마련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7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정서적 특성에 관한 인식' 12개, '지원에 관한 인식' 11개, '동등성에 관한 인식' 8개, '반성적 인식' 5개, '대인관계에 관한 인식' 11개, '역량에 관한 인식' 11개, '제약에 관한 인식' 6개로 이루어진 2차 표본을 구성하였다. 최종 진술문 선정 시에는 자극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40개의 문장으로 Q-표본을 구성하되(김흥규,

2008), 2차 표본의 영역별 진술문 수와 긍정, 중립, 부정 진술문 수의 비율을 감안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Q-표본은 특수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3인에게 연구목적의 타당성, 진술문의 대표성과 상호배타성, 진술 용어의 적절성을 검토 받았다. Q-표본의 영역별 구성은 <표 1>, Q-표본의 진술문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Q표본의 구성

영역	진술문 수	비고
정서적 특성에 관한 인식	7	(긍정 6, 중립 0, 부정 1)
지원에 관한 인식	7	(긍정 0, 중립 5, 부정 2)
동등성에 관한 인식	5	(긍정 1, 중립 3, 부정 1)
반성적 인식	4	(긍정 4, 중립 0, 부정 0)
대인관계에 관한 인식	7	(긍정 2, 중립 1, 부정 4)
역량에 관한 인식	6	(긍정 4, 중립 0, 부정 2)
제약에 관한 인식	4	(긍정 0, 중립 0, 부정 4)
계	40	(긍정 17, 중립 9, 부정 14)

<표 2> Q표본의 진술문

Q-진술문
1. 장애대학생의 존재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된다.
2. 자신만의 재능이나 장점이 있다.
3. 다른 대학생과 다름없이 대학생활을 누린다.
4.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한다.
5. 학교에서 자주 만나기 힘들다.
6. 장애대학생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이 많다.
7. 학과 동기를 잘 만나야 한다.
8. 학업에서 비장애대학생과 경쟁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9. 장애대학생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막막하다.
10. 장애대학생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11. 수업이나 교내의 활동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노력한다.
13. 힘든 과정을 거쳐 대학을 오게 된 것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14. 불충분한 시설과 서비스로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불편함을 겪는다.
15. 내재된 잠재력이 언젠가 발현될 것이다.
16. 친구,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17. 진로결정과 졸업 후의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극복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18. 장애대학생을 통해 노력하고 극복하는 점을 배우게 된다.
19. 밝고 순수하다.
20. 혹시 내가 장애대학생에게 실수를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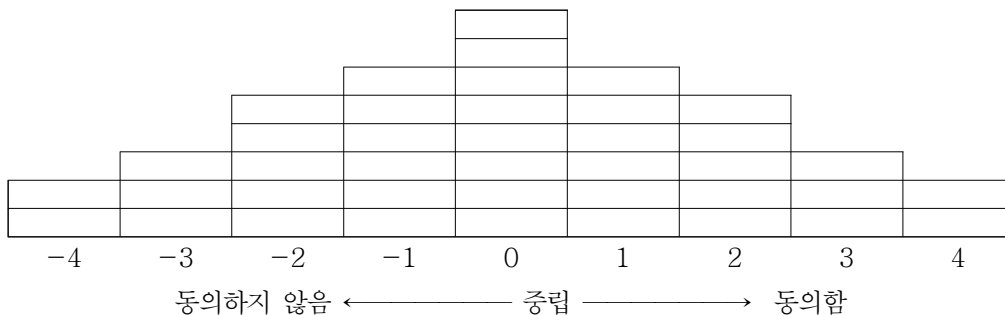
Q표본의 진술문(계속)

Q-진술문

21. 자신 및 주어진 환경과의 싸움을 이겨낸 사람이다.
22.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친구이자 동료이다.
23. 수업, 시험, 과제에서 교수자 및 학생들과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한다.
24. 열등감이 심하다.
25. 장애를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움의 연속일 것이다.
26. 많은 대학생들과 같이 평범한 한 명의 학생 일 뿐이다.
27. 장애대학생과 편견 없이 어울리고 싶지만, 실제로는 나도 그계 잘 안 된다.
28. 다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29. 장애대학생에게 대학진학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기쁨으로 여겨질 것이다.
30. 다른 사람들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상처를 받는다.
31.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한다.
32. 수업이나 교내외 활동에 소극적이다.
33. 부당함, 불편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알려 개선하고자 한다.
34. 필요한 지원이 주어진다면 학업과 대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
35. 특별전형입학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교육권 보장 기회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한다.
36. 학업성취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37. 다른 대학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38. 도서관, 식당, 교내버스 등 학교에서의 생활에 우선적으로 배려 받아야 한다.
39. 만날수록 편견과 두려움이 적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
40. 주변의 편견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3) Q-표본 분포도 작성

연구자들은 Q-표본(40개의 진술문) 제시지와 Q-표본을 동의 수준에 따라 배열할 수 있는 Q-표본 분포표를 제작하였다. Q-표본 분포표는 <그림 1>과 같이 표 안에 진술문의 번호를 기입하도록 제시하였다.



<그림 1> Q표본 분포표

2. P-표본

Q-분류에 참여한 대상은 B시에 소재한 6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었다.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이 고르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성별, 학년, 전공을 고려하여 질문지를 배부하되, Q-모집단 수집에 참여한 대학생은 제외하였다. 특수교육 관련 교과 수강 경험 변인을 고려하여 사범대학에는 20명의 대학생, 다른 8가지 전공계열(공학, 사회, 상경, 생활환경, 약학, 예술, 인문, 자연)은 각 10명의 대학생 선정하여 총 1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82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 무응답이나 이중응답이 있는 조사지 6부를 제외하고, 76명의 비장애대학생을 P-표본에 최종적으로 포함시켰다.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N=76)

구분		n(%)	구분		n(%)
성별	남	34(44.7)	학과 내 장애학우 유무	있음	15(19.7)
	여	42(55.3)		없음	61(80.3)
학년	1학년	13(17.1)	전공	공학계열	7(9.2)
	2학년	20(26.3)		사범계열	18(23.8)
	3학년	21(27.6)		사회계열	8(10.5)
	4학년	22(28.9)		상경제열	8(10.5)
특수교육 관련 교과 수강 여부	있음	18(23.7)		생활환경계열	8(10.5)
	없음	58(76.3)		약학계열	7(9.2)
학령기 통합교육 경험 유무	있음	50(65.8)		예술계열	5(6.6)
	없음	26(34.2)		인문계열	7(9.2)
				자연계열	8(10.5)
				평균 연령	21.5세

3. Q-분류

연구자들은 참여 대학생들에게 40개의 진술문을 읽고 각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진술문 제시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동의 순서에 따라 오른쪽 끝에서부터(+4) 왼쪽 끝으로(-4) 배열하여 진술문의 번호를 쓰도록 하되, 응답 중 수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Q-분류 후, 양 끝에 놓인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과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의 선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4. 자료 처리

응답 자료는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1점)부터 가장 동의하는 것(9점)을 순차적으로 부여해 코딩하고, QUANL 프로그램으로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기초로 인식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진술문별 표준점수와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 진술문 선택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명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비장애대학생이 인식하는 장애대학생 인식 유형

응답결과를 요인분석하여 아이겐 값 1.0이상의 인식 유형 4가지가 도출되었다.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백분율은 <표 4>와 같다.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아이겐 값	17.07	7.57	3.43	3.10
변량 백분율	22.46	9.96	4.51	4.08
누적 변량 백분율	22.46	32.41	36.92	41.00
사례 수	29	21	19	7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 1유형 22.46%, 제 2유형 9.96%, 제 3유형 4.51%, 제 4유형 4.08%로 나타났으며, 4개 유형은 전체 변량의 41.00%를 설명하였다. 유형별 P 표본은 제 1유형 29명, 제 2유형 21명, 제 3유형 19명, 제 4유형 7명으로 분류되었다.

2.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의 유형별 특성

1) 제 1유형 : 저력 인정형

제 1유형으로 분류된 비장애대학생은 모두 29명으로, 이들의 인자가중치는 <표 5>와

같다. 또한 이 유형에 포함된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함께 제시하였다.

<표 5> 제 1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위	ID	성별	연령	학년	전공	특수교육 관련교과 수강 여부	통합교육 경험 유무	학과 내 장애학우 유무	인자 가중치
1	57	여	19	1	의류학	X	X	X	1.69
2	11	여	19	1	토목공학	X	O	X	1.36
3	30	남	24	4	특수교육	O	X	O	1.20
4	63	남	23	1	특수교육	O	O	O	1.16
5	14	여	24	4	지리교육	O	O	X	1.04
6	23	여	19	2	심리학	X	O	O	1.04
7	65	여	21	2	특수교육	O	X	O	1.04
8	41	남	25	4	통계학	X	X	X	.97
9	50	여	20	2	특수교육	O	O	O	.90
10	69	남	22	3	산업디자인	X	O	X	.88
11	58	남	25	4	경영학	X	O	X	.84
12	24	남	19	1	사회복지	X	O	X	.83
13	39	남	19	1	계약학	X	X	X	.79
14	38	여	22	4	영어교육	O	O	X	.77
15	62	여	22	4	경제통상	X	X	X	.77
16	60	남	23	3	사학	X	O	O	.69
17	61	여	20	2	중어중문	X	X	X	.68
18	72	여	19	1	아동가족학	X	O	X	.68
19	55	여	19	1	특수교육	O	O	O	.67
20	59	남	26	4	영어영문	X	O	O	.66
21	68	여	20	3	산업디자인	X	X	X	.57
22	18	여	20	2	아동가족학	X	O	X	.54
23	37	남	21	2	사회학	X	O	X	.52
24	16	여	23	4	영어교육	O	O	X	.47
25	33	여	20	3	건축학	X	O	X	.42
26	32	남	18	1	사회복지	X	O	X	.38
27	71	남	21	2	대기환경	X	O	X	.33
28	42	여	20	2	음악학	X	X	X	.31
29	2	남	22	3	체육교육	O	O	O	.30

제 1유형의 비장애대학생들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나타낸 진술문의 표준점수($Z = \pm 1.00$ 이상)는 <표 6>과 같다.

<표 6> 제 1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11	수업이나 교내외 활동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79
2	자신만의 재능이나 장점이 있다.	1.65
13	힘든 과정을 거쳐 대학을 오게 된 것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1.41
21	자신 및 주어진 환경과의 싸움을 이겨낸 사람이다.	1.20
18	장애대학생을 통해 노력하고 극복하는 점을 배우게 된다.	1.19
1	장애대학생의 존재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된다.	1.05
9	장애대학생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막막하다.	-1.12
8	학업에서 비장애대학생과 경쟁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1.14
30	다른 사람들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상처를 받는다.	-1.28
25	장애를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움의 연속일 것이다.	-1.45
40	주변의 편견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1.50
32	수업이나 교내외 활동에 소극적이다.	-1.82
24	열등감이 있다.	-2.55

<표 6>과 같이 제 1유형으로 분류된 비장애대학생들은 11번 진술문($Z=1.79$)과 2번($Z=1.65$), 13번($Z=1.41$), 21번($Z=1.20$), 18번($Z=1.19$) 진술문들에서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24번($Z=-2.55$), 32번($Z=-1.82$), 40번($Z=-1.50$), 25번($Z=-1.45$), 30번($Z=-1.28$), 8번($Z=-1.14$) 진술문 등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제 1유형은 장애로 인한 차별에 반대하며, 장애대학생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학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제 1유형의 응답자들은 장애대학생을 대인관계나 학업 등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인물로 떠올리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1유형 대학생들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다른 유형보다 더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점수 차이
18	장애대학생을 통해 노력하고 극복하는 점을 배우게 된다.	1.19	-.53	1.72
4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한다.	.91	-.47	1.37
1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노력한다.	.67	-.30	.97
21	자신 및 주어진 환경과의 싸움을 이겨낸 사람이다.	1.21	.28	.93
15	내재된 잠재력이 언젠가 발현될 것이다.	.59	-.23	.82
13	힘든 과정을 거쳐 대학을 오게 된 것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1.41	.63	.79
2	자신만의 재능이나 장점이 있다.	1.65	.93	.72
10	장애대학생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39	-.31	.70
24	열등감이 있다.	-2.55	-1.86	-.69
6	장애대학생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이 많다.	-.93	-.07	-.85
40	주변의 편견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1.50	-.07	-1.44
30	다른 사람들로 인해 피로움을 겪고 상처를 받는다.	-1.28	.16	-1.44
25	장애를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움의 연속일 것이다.	-1.45	.03	-1.48
27	장애대학생과 편견 없이 어울리고 싶지만, 실제로는 나도 그게 잘 안 된다.	-.80	.76	-1.55
14	불충분한 시설과 서비스로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불편함을 겪는다.	-.68	.88	-1.55
32	수업이나 교내외 활동에 소극적이다.	-1.82	-.15	-1.67
8	학업에서 비장애대학생과 경쟁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1.14	.65	-1.79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동의하는 진술문에는 18번, 13번, 10번과 같이 장애대학생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다는 인식에 관한 문장과 4번, 12번, 21번, 15번 등 강인하고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이 표출되는 문장들이 포함되었다. 반면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8번, 14번, 25번 문장이나 장애대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32번, 6번, 24번 문장에 관해서는 다른 유형보다 낮게 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1유형의 특성을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동의하는 것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진술문의 선택 이유를 살펴보았다.

‘대학 진학은 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는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이룬 결실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라 생각한다, 또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과 장점이 있듯이 장애대학생들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대학에 입학했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57, 21번과 2번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

‘일반학생들과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대학에 온 것이 참 대단한 것 같다.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애학생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켜보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연구참여자 41, 13번과 18번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장애로 인해 스스로 감수해야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것이 비장애학생과의 경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결코 아닌 것 같다. 또한 그들이 장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휠체어를 끌고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간간히 의견을 제시하고, 항상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늘 밝게 웃으면서 학업하는 장애대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14, 8번과 24번을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 선택)

‘고등학교 1학년 때 특수반이었던 친구들이 2, 3학년 때 일반학생들과 같은 반이 되어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덕에 편견이 없어지고 어떻게 대해야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소극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웃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일이 많습니다.’ (연구참여자 11, 9번과 32번을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 선택).

연구참여자 57과 41은 장애학생들이 ‘힘든 상황’, ‘다른 출발점’에 처해있었지만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이 ‘결실’이며 ‘대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장애대학생이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이기에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도 삶의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참여자 14와 11의 의견을 통해 장애대학생이 소극적이거나 열등감을 가진 대상이 아닌, 학업과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물로 연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종합하면, 제 1유형의 대학생들은 장애대학생들이 스스로 어려움과 한계를 뛰어 넘어 대학에 오게 되었으며, 본연의 잠재력과 내재된 힘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면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장애대학생을 열등감이나 소극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학업이나 대인관계,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애대학생의 존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각심과 일깨움을 준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제 1유형을 ‘저력 인정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 2유형 : 고충 우려형

제 2유형으로 분류된 비장애대학생은 모두 21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8>과 같다.

<표 8> 제 2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위	ID	성별	연령	학년	전공	특수교육 관련교과 수강 여부	통합교육 경험 유무	학과 내 장애학우 유무	인자 가중치
1	34	남	20	3	건축학	X	O	X	2.21
2	8	여	23	4	역사교육	X	O	X	1.43
3	19	남	19	1	국어국문	X	O	X	1.43
4	67	여	21	3	의류학	X	X	X	1.15
5	25	남	25	4	화학	O	O	X	1.12
6	5	남	20	1	중어중문	X	X	X	1.04
7	43	여	20	2	계약학	X	O	X	1.03
8	26	여	22	4	약학	X	O	X	.88
9	28	여	22	4	아동가족학	X	O	X	.82
10	10	남	33	3	약학	X	O	X	.76
11	9	여	23	4	경영학	X	O	X	.74
12	29	여	22	4	약학	X	O	X	.69
13	3	남	23	2	국어교육	O	O	O	.67
14	73	남	22	3	생물학	X	X	X	.48
15	70	여	20	2	아동가족학	X	O	X	.46
16	46	여	24	3	음악학	X	X	X	.41
17	66	남	23	3	의류학	X	O	X	.40
18	6	여	20	3	화학	X	X	X	.32
19	75	남	22	2	생물학	X	X	X	.28
20	49	남	24	3	교육학	O	O	X	.25
21	54	남	25	4	경제학	X	X	X	.23

제 2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의 표준점수는 <표 9>와 같다.

<표 9> 제 2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8	학업에서 비장애대학생과 경쟁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1.87
17	진로결정과 졸업 후의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극복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1.61
2	자신만의 재능이나 장점이 있다.	1.35
7	배려심이 있는 학과 동기를 만나야 한다.	1.30
14	불충분한 시설과 서비스로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불편함을 겪는다.	1.09
9	장애대학생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막막하다.	1.06
11	수업이나 교내외 활동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05
27	장애대학생과 편견 없이 어울리고 싶지만, 실제로는 나도 그제 잘 안 된다.	1.00
37	다른 대학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1.18
24	열등감이 있다.	-1.28
36	학업성취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1.32
31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한다.	-1.56
33	부당함이나 불편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알려 개선하고자 한다.	-2.32
3	다른 대학생과 다름없이 대학생활을 누린다.	-2.62

<표 9>에 제시된 대로 제 2유형의 대학생들이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8번 ($Z=1.87$), 17번 ($Z=1.61$), 2번 ($Z=1.35$), 7번 ($Z=1.30$), 14번 ($Z=1.09$) 등이었다. 반면 제 2유형의 비장애대학생들이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3번 ($Z=-2.62$), 33번 ($Z=-2.32$), 31번 ($Z=-1.56$), 36번 ($Z=-1.32$), 24번 ($Z=-1.28$) 등으로 나타났다.

제 2유형의 응답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의 학업, 진로, 학우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에 주목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장애대학생들이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실상 다른 학생과 같은 대학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학생을 배려하고 어울리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0>은 이 유형의 표준점수가 다른 유형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들이다.

<표 10>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점수 차이
9	장애대학생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막막하다.	1.06	-1.32	2.38
8	학업에서 비장애대학생과 경쟁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1.87	-.35	2.22
5	학교에서 자주 만나기 힘들다.	.96	-.45	1.41
25	장애를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움의 연속일 것이다.	.71	-.70	1.41
6	장애대학생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이 많다.	.60	-.58	1.18
7	배려심이 있는 학과 동기를 만나야 한다.	1.30	.27	1.03
30	다른 사람들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상처를 받는다.	.51	-.44	.95
17	진로결정과 졸업 후의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극복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1.61	.71	.90
39	만날수록 편견과 두려움이 적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	-.63	.16	-.79
34	필요한 지원이 주어진다면 학업과 대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	-.31	.76	-1.06
31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한다.	-1.56	-.48	-1.09
35	특별전형입학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교육권 보장 기회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한다.	-.44	.65	-1.09
33	부당함이나 불편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알려 개선하고자 한다.	-2.32	-1.04	-1.28
3	다른 대학생과 다름없이 대학생활을 누린다.	-2.62	-1.32	-1.30
36	학업성취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1.32	.04	-1.36
26	많은 대학생들과 같이 평범한 한 명의 학생 일 뿐이다.	-.92	.45	-1.37
37	다른 대학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1.18	.27	-1.44

제 2유형은 9번과 6번, 30번과 같이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 간의 불편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장, 8번, 5번, 25번, 17번의 학업과 진로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문장에 더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37번, 26번, 3번 등 동등성에 관한 문장들과 36번, 33번, 31번, 39번과 같은 긍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한 동의수준이 다른 유형보다 낮았다.

제 2유형의 대학생들이 가장 동의하거나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한 진술문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장애대학생에게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것은 비장애인 다른 동기들과 경쟁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기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많을 것이다.’ (연구참여자 34, 7번과 8번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

‘장애학생에 대해 학창시절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실제로 장애대학생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장애대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받더라도 사람들의 편견, 인식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05, 9번과 30번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

‘다른 대학생과는 확연히 생활이 다르다. M.T, 같은 거도 가기 어렵고, 동기·선배와 관계 문제도 있어서 대학생다운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또 장애학생이 자신의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모습은 자주 보기 어렵다. 그냥 자기 혼자 투덜거릴 뿐 개선하려는 의지는 안 보인다.’ (연구참여자 19, 3번과 33번을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 선택)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말이 옳은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회적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장애대학생은 환경, 시설, 인식 등으로 인해 불편한 대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연구참여자 67, 3번과 26번을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 선택)

제 2유형은 진술문 선택의 이유를 통해 장애대학생들을 선배 및 동기와의 관계, 사회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또한 장애대학생이 학업이나 대학생활,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고, 비장애학생과 겨루는 것이 실제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학우들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사회적 편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장애대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난감함을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제 2유형은 장애대학생을 사회나 학우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학업 수행, 학교시설 이용, 진로 결정과 준비에 역경을 가지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2유형의 대학생들은 장애대학생이 강점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장애대학생을 지원하거나 장애대학생과의 긍정적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염려하였다. 즉 장애대학생이 가지는 어려움과 함께 장애대학생에 대한 자신의 어려움 또한 지각하였다. 그러하기에 연구자들은 제 2유형의 이름을 ‘고충 우려형’이라 정하였다.

3) 제 3유형 : 보편성 주목형

제 3유형으로 분류된 비장애대학생은 모두 19명이었으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11>과 같다.

<표 11> 제 3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위	ID	성별	연령	학년	전공	특수교육 관련교과 수강 여부	통합교육 경험 유무	학과 내 장애학우 유무	인자 가중치
1	13	여	19	2	약학	X	O	X	1.81
2	51	남	20	3	경제학	X	O	O	1.31
3	40	남	24	4	영어교육	O	O	X	1.19
4	27	여	22	4	생명과학	X	X	O	1.13
5	31	여	23	4	건축학	X	X	X	1.04
6	17	여	20	2	유아교육	O	O	X	1.00
7	22	여	19	2	사회학	X	X	X	.98
8	21	남	19	2	경영학	X	O	X	.88
9	47	남	24	3	교육학	O	O	X	.81
10	64	여	20	3	특수교육	O	O	O	.77
11	53	여	22	3	정치외교	X	X	X	.73
12	56	남	22	3	사회학	X	O	O	.67
13	12	여	22	4	역사교육	O	O	X	.60
14	20	여	20	1	음악학	X	X	X	.60
15	4	여	19	2	영어영문	X	X	X	.60
16	35	남	25	3	건축학	X	X	X	.58
17	45	남	22	4	경영학	X	O	X	.54
18	44	남	20	2	계약학	X	X	X	.49
19	76	여	20	2	아동가족학	X	O	X	.42

제 3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의 표준점수는 <표 12>와 같다.

〈표 12〉 제 3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34	필요한 지원이 주어진다면 학업과 대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	1.71
14	불충분한 시설과 서비스로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불편함을 겪는다.	1.68
11	수업이나 교내외 활동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65
22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친구이자 동료이다.	1.62
17	진로결정과 졸업 후의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극복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1.41
26	많은 대학생들과 같이 평범한 한 명의 학생 일 뿐이다.	1.30
21	자신 및 주어진 환경과의 싸움을 이겨낸 사람이다.	1.20
38	도서관, 식당, 교내버스 등 학교에서의 생활에 우선적으로 배려 받아야 한다.	1.19
28	다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1.05
31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한다.	-1.06
10	장애대학생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1.13
3	다른 대학생과 다름없이 대학생활을 누린다.	-1.39
32	수업이나 교내외 활동에 소극적이다.	-1.71
24	열등감이 있다.	-2.25

제 3유형으로 분류된 비장애대학생들이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34번 ($Z=1.71$), 14번 ($Z=1.68$), 11번 ($Z=1.65$), 22번 ($Z=1.62$), 17번 ($Z=1.41$), 26번 ($Z=1.30$) 등이었다. 반면 24번 ($Z=-2.25$)과 32번 ($Z=-1.71$), 3번 ($Z=-1.39$), 10번 ($Z=-1.13$), 31번 ($Z=-1.06$) 등의 진술문에는 부정적 동의를 나타내었다.

제 3유형의 학생들이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들에는 ‘지원’, ‘시설과 서비스’, ‘배려’, ‘관심’ 등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적·물적 환경의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나와 다를 것 없이 평범하며,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학교생활이나 학업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다른 대학생과 다름없는 대학생활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극복할 것이 많은 존재로 장애대학생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 3유형의 특성을 더욱 면밀히 찾아낼 수 있는 근거인 다른 유형보다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표 13>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13>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점수 차이
22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친구이자 동료이다.	1.61	-.07	1.69
34	필요한 지원이 주어진다면 학업과 대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	1.71	.08	1.63
26	많은 대학생들과 같이 평범한 한 명의 학생 일 뿐이다.	1.30	-.30	1.60
14	불충분한 시설과 서비스로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불편함을 겪는다.	1.68	.09	1.59
39	만날수록 편견과 두려움이 적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	.62	-.26	.88
15	내재된 잠재력이 인젠가 발현될 것이다.	-.39	.10	-.48
10	장애대학생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1.13	.20	-1.33
1	장애대학생의 존재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된다.	-.33	1.04	-1.37

제 3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동의하는 진술문에는 22번과 26번, 39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하거나 달리 여길 것 없는 보편적이고 평범한 학우임을 인정하는 인식 경향이 드러났다. 이는 장애대학생의 잠재력이나 장애대학생을 통한 타인들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1번, 10번, 15번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가 다른 유형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나, 독특하고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경향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34번과 14번 문장에서 다른 유형보다 더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내 장애대학생에 대한 외부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3유형의 비장애대학생들이 가장 동의하는 것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진술문의 선택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애대학생은 자신에게 필요한 약간의 도움만 있다면 어느 대학생과 다름없이 대학생할을 할 수 있는 학생이다. 일반대학생과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대우를 똑같이 받는다고보다 일반대학생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등한 선을 맞춰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장애대학생과 수업을 같이 들어보기 전에는 장애대학생에 대해 편심을 가지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 때 그 학생을 본 후로 장애대학생이 학업에 관심이 많고 우리와 같은 대학생이구나를 확실히 느꼈었다.’ (연구참여자 13, 34번과 39번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

‘우리 학교만 봐도 순환버스에 장애대학생을 위한 시설이 없고 학교가 오르막이라 다리가 불편한 학생이라면 전동휠체어도 다니기 힘들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건물도 많다. 당장 장애학생이 입학을 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어떤 강의실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는 올라갈 수가 없다. 장애학생이 그 상황과 마주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을 이해 충분한 지원은 필수적인 것 같다. 충분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애학생의 학업 성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연구참여자 17, 14번과 34번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

‘장애대학생과 함께 하는 수업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들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느껴진다. 그렇지만 장애대학생이 동등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장애로 인해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만 도와주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과 같다.’ (연구참여자 31, 3번과 9번을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 선택)

‘학교 시설, 수업 방식, 학생들의 문화 등 모든 것이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애인 학생들도 나름대로 학업과 대학 문화에 참여 할 순 있겠지만 다른 학생들과 다름없이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차별 없이 같은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대학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편견에서 때문은 아니다. 학교의 시설과 지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에는 장애인 학생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고, 다만 학교의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 학생들을 배려하고 함께 대학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연구참여자 22, 3번과 6번을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 선택)

위의 서술대로 제 3유형의 대학생들은 비장애대학생에게 맞춰진 강의실, 화장실, 학교 버스 등의 교내외 시설과 대학문화로 인해 장애대학생들이 제한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제 3유형의 대학생들은 장애대학생 또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 한 명의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이 편견을 가지거나 특별하게 여길 것이 없는 같은 학생이라는 인식을 피력하였다. 환경적 체제가 잘 구축되고 필요한 지원과 기회만 제공된다면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제 3유형은 장애대학생이 대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공통성과 보편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유형은 장애대학생 또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한명의 학우로 여긴다. 그렇지만 제 3유형은 현실적으로 장애대학생들이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접근하는데 제한을 겪고 있음을 거론

하면서, 장애대학생이 비장애대학생과 다름없이 수업에 참여하고 대학생활을 누리도록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과 서비스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제 3유형을 ‘보편성 주목형’으로 이름 붙였다.

4) 제 4유형 : 온정적 지원 촉구형

제 4유형으로 분류된 비장애대학생은 모두 7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표 14>와 같다.

<표 14> 제 4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위	ID	성별	연령	학년	전공	특수교육 관련교과 수강 여부	통합교육 경험 유무	학과 내 장애학우 유무	인자 가중치
1	52	남	23	3	경제학	X	O	X	.99
2	15	여	22	4	국어교육	O	O	X	.82
3	1	여	22	4	국어교육	X	X	X	.56
4	74	남	18	1	생물학	X	X	X	.39
5	48	여	21	3	통계학	X	O	X	.37
6	36	여	20	2	사회학	X	O	X	.28
7	7	남	19	1	토목공학	X	O	X	.27

제 4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의 표준점수는 <표 15>와 같다.

<표 15> 제 4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점수
1	장애대학생의 존재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된다.	1.87
38	도서관, 식당, 교내버스 등 학교에서의 생활에 우선적으로 배려 받아야 한다.	1.73
28	다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1.35
11	수업이나 교내외 활동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28
35	특별전형입학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교육권 보장 기회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한다.	1.10
32	수업이나 교내외 활동에 소극적이다.	1.10
37	다른 대학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1.04
19	밝고 순수하다.	-1.25
22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친구이자 동료이다.	-1.51
9	장애대학생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막막하다.	-1.92
24	열등감이 있다.	-2.05
3	다른 대학생과 다름없이 대학생활을 누린다.	-2.11

67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2호)

제 4유형은 1번(Z=1.87), 38번(Z=1.73), 28번(Z=1.35), 11번(Z=1.28), 35번(Z=1.10) 등의 문장에 높이 동의하였다. 그러나 3번(Z=-2.11), 24번(Z=-2.05), 9번(Z=-1.92), 22번(Z=-1.50), 19번(Z=-1.25) 등의 문장들에는 동의수준이 낮았다.

이 유형의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과 대학생활에서 장애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고,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하였다. 이들은 장애대학생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기 원하지만, 다른 대학생들만큼 대학생활을 누리지는 못하고 소극적이며, 다른 학생들의 배려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이들은 장애대학생을 열등감, 순수함 등의 정서적 특성과 결부시켜 연상하지는 않았다.

제 4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표 16>과 같다.

<표 16> 제 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게 혹은 낮게 동의하는 진술문

번호	Q 진술문	표준 점수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점수 차이
32	수업이나 교내외 활동에 소극적이다.	1.10	-1.13	2.22
1	장애대학생의 존재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된다.	1.87	.30	1.57
37	다른 대학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1.04	-.47	1.51
40	주변의 편견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57	-.76	1.32
38	도서관, 식당, 교내버스 등 학교에서의 생활에 우선적으로 배려 받아야 한다.	1.73	.68	1.05
28	다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	1.35	.31	1.04
35	특별전형입학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교육권 보장 기회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한다.	1.10	.14	.96
19	밝고 순수하다.	-1.25	-.74	-.51
1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노력한다.	-.68	.15	-.83
5	학교에서 자주 만나기 힘들다.	-.89	.17	-1.06
18	장애대학생을 통해 노력하고 극복하는 점을 배우게 된다.	-.93	.18	-1.10
9	장애대학생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막막하다.	-1.92	-.33	-1.59
21	자신 및 주어진 환경과의 싸움을 이겨낸 사람이다.	-.86	.96	-.82
22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친구이자 동료이다.	-1.51	.97	-2.48

<표 16>과 같이 제 4유형은 32번과 40번 문장에서 다른 유형보다 동의수준이 높고, 12번과 21번 문장에서는 더 낮은 동의를 나타내, 장애대학생을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38번과 28번 진술문에 대한 동의수준이 다른 유형보다 높아 장애대학생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둘 수 있었다. 한편 1번과 35번 문장에 더 동의하고, 5번 문장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나타내어 제 4유형이 장애학생 대학진학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짐을 엿볼 수 있다.

제 4유형의 비장애대학생들이 장애대학생에 대해 가장 동의하거나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장을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즐기는 모습은 분명 다른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정상인보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배려로 우리가 보살펴주어야만 더 큰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01, 1번과 28번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

‘학과 내에서는 장애대학생이 없지만, 강의의 들을 때 간혹 본 적은 있다, 그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그들이 도움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도와줘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다, 장애대학생을 우리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들에게는 마음을 터놓거나 때로는 나도 기댈 수 있는 그런 ‘친구’같은 이미지 보다는,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약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장애대학생들은 선천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도와주어야만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해서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 사이에 거리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한다, 가끔 나의 도움이 동정처럼 보여서 그들에게 불편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는 일종의 동정도 작용한다고 본다.’ (연구참여자 15, 27번과 27번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으로 선택)

‘대체로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자신이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여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이러한 것이 열등감이라기보다는 장애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01, 16번과 24번을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반학생들과 신체적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배려라던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74, 22번과 26번을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 선택)

이렇듯 제 4유형은 장애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보상해주기 위한 배려와 보살핌, 혜택이 필요한 대상으로 장애대학생을 연상하고 있었다. 특히 이 유형은 15번 연구참여자가 표현한 ‘의무감’, ‘동정’, ‘약자’, 74번 연구참여자가 표현한 ‘다름’을 통해 해석할 수 있듯이 장애대학생을 비장애대학생과 다른, 약한, 평범하지 않은, 불편한 존재로 그려내고 있었다.

제 4유형에 속한 비장애대학생들은 장애대학생에게는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실시, 접근가능한 대학 시설의 마련, 학우들의 배려와 관심 등 전반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이면에는 주위의 편견과 장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소극적이며, 일반인들과 다른 차별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장애대학생을 떠올리는 인식이 숨어있었다. 그러하기에 제 4유형을 ‘온정적 지원 촉구형’으로 명명하였다.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비장애대학생들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그 유형을 분석하며,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비장애대학생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 유형은 ‘저력 인정형’, ‘고충 우려형’, ‘보편성 주목형’, ‘온정적 지원 촉구형’의 4가지로 도출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문장을 추출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에게 개방적 문항을 제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장애대학생의 정서적 특성에 관한 인식,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역량에 관한 인식, 제약과 불편함에 관한 인식, 지원에 관한 인식, 동등성에 대한 인식이 표출되었다. 대학생들이 제시한 이 문장들은 장애대학생에 대한 직관적 생각, 장애학생과 연관된 경험, 장애에 관한 지식과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장애대학생의 인식을 이해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비장애대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으나(김미옥, 2003; 김기홍, 2006; 박재국, 2008; 정혜영, 서보순, 2012), 이 연구에서는 동등성, 역량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에 대한 인식 또한 검출되어, 그 인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둘째, 제 1유형 ‘저력 인정형’의 대학생들은 장애대학생들이 어려움을 가지면서도 특유의 잠재력과 부단한 노력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학업이나 대인관계,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런 장애대학생의 존재는 타인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반성하고 의지를 다지도록 해 준다고 여겼다.

본 연구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제 1유형이 장애대학생을 강점과 역량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장애대학생에 대한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감정을 드러낸 선행연구(김기홍, 2006; 박재국, 2008)와는 다른 관점의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이 유형의 대학생들이 밝힌 대로, 장애를 가졌음에도 일반인들도 이루기 힘든 대학 진학이라는 성과를 일궈낸 것에 대한 경외심과,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락하고 불편이 적은 조건에서도 삶을 열심히 살고 있지 못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경각심에서 발로된 인식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이전에 다닌 학교에서, 또는 현재 대학에서 함께 생활하고 수업을 받으며 마주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습을 보며 형성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장애인 수용태도에 대한 통합교육 경험의 긍정적 영향(송수지, 김정민, 2008; 하태환, 2004; 최수자, 2004)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편으로 이 유형이 장애대학생들을 자신과의 싸움, 환경적 난관을 딛고 대학입학의 관문을 통과한, 극복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은진과 유성경(2011)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다양성과 개별성보다는 ‘역경을 이겨낸 영웅’ 또는 ‘불쌍한 주변인’으로 양 극단의 모습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제 1유형이 장애대학생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나, 이와 함께 장애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웠던 대상, 대학에 입학한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여겨져야 하는 사람, 장애 극복의 한 가지 사례와 같이 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한 개인을 바라보는 인식 또한 내포되어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셋째, 제 2유형인 ‘고충 우려형’은 장애대학생들의 학업, 학우들과의 관계, 진로에서의 어려움에 주목하였다. 장애대학생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대학이나 사회에서 의미 있게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 유형은 장애대학생이 가진 다면적인 역경뿐 아니라 이들을 대하는 비장애학생의 고충 또한 제기하였다.

통합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과 학교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환경적 여건이 적절하게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바람직한 통합교육의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대학시절은 한 개인이 새로운 생각과 믿음, 기회와 역할, 행동을 탐색하게 하고 새로운 학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접하는 시기로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시기이다(Berk, 2009). 이 시기는 장애대학생에게 있어 새로운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장애를 수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고(Lance, 2005), 비장애대학생 또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자아를 정립하고 삶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새기는 때이다. 관계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 사회에서(김명소, 한영석, 2006; 이웅 외,

2011) 대학에서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은 성인기를 맞이하는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는 기반이 되며, 사회통합의 교두보가 된다. 그러하기에 고등교육에서도 사회적 수용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마땅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 전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Griffin et al., 2012), 대학생활 적응과 참여의 핵심요인인 장애수용(공마리아, 강윤주, 2010; 이웅 외, 2011)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학생들은 다양한 정서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친구 만들기, 선배와의 대화 사제동행, 장애학생을 위한 캠프, 간담회 등 여러 유형의 만남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를 희망한다(김미선, 박중휘, 2013). 아울러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비장애학생 또한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대학생과 만나는 비장애대학생들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합리적 배려가 제공되며, 장애이해 프로그램,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 개입이 요구되고, 비장애대학생의 지원요구를 탐색하는 연구 또한 실행되어야 하겠다.

넷째, 제 3유형 ‘보편성 주목형’은 장애대학생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물리적 환경과 참여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어려움에서 벗어나 대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즉 이들에게 장애대학생은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비장애학생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는 보편성과 공통성을 가진 존재로 자리매김되고 있었다.

장애대학생을 대학생으로서의 보편성에 초점을 두고, 지원이 필요한 개별적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는 이러한 인식은 ‘포함(inclusive)’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현대의 통합교육의 지향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장애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방향은 개인의 차이 및 다양성의 수용에 있으며(김수연, 이대식, 20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무수한 다양성과 개별성의 모습으로 존재한다(이은진, 유성경, 2011). 장애대학생들이 개성을 지닌 보편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 3유형이 언급한 것과 같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지닌 신체적·심리적인 장애로 인하여 독특한 특성과 그에 따른 요구를 가짐에 따라 그에 적절한 편의 지원이 이루어질 때 고등교육에서의 접근권 또한 보장될 수 있다(김경선 외, 2013). 하지만,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법률적 제안을 모두 충족시켜 줄 대학 내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의 상황이며(김용욱, 김남진, 박정란, 2008), 장애학생들은 학습권의 실현과는 현재 거리가 있고, 입학의 허가와 학습권은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김미선, 박중휘, 2013). 수업시간에 맞춰 강의실에 도착하기, 원하는 좌석에 앉기, 자신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수업내용을 표상하고 의견을 표현하기, 과제와 시험에 제한 없이 참여하기, 학우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고민을 터놓기, 학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기와 같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의 일상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대학생들이 장애대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학업과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및 설비의 마련, 교수 및 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보조인력 및 서비스 이용, 학습자료의 다양화와 선택권 부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에 관한 상담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함이 마땅하다(서보순, 김자경, 신혜정, 2014).

다섯째, 제 4유형 ‘온정적 지원 촉구형’ 또한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제 3유형이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 간의 공통성에 초점을 두고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면, 제 4유형은 장애대학생의 한계와 제한에 더 중점을 두었다. 제 4유형에서 장애대학생은 교육권의 보장과 대학생활 영위를 위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보상받을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배려와 교육제도의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이 학업 및 적성문제, 진로문제, 대인관계, 목표상실, 가치혼란 등 대학생활 적응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이웅 외, 2011),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신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비장애학생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정애, 최용용, 2010). 그렇기 때문에 장애대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제 4유형은 적극적 지원을 촉구함에 있어 장애대학생을 지속적인 배려와 혜택이 주어져야만 하는, 비장애인이 보살펴주어야만 하는, 약자이자 동정의 대상임을 언급하였다. 대학생들이 장애인을 비장애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비주체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점, 즉 동등한 사회참여의 주체로서가 아닌 시혜적, 온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점은 김진영과 남진열(2005)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방향이 도움과 배려보다는 정당한 권리 보장과 지원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김수연과 이대식(2011)의 관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이해교육에 일방적 배려보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대학생의 능동성과 역량, 강점을 주제로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Q-방법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심층적인 인식을 탐색하여 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방법적인 한계 또한 존재한다. 소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Q방법의 특성(김현수, 원유미, 2000)에 따라 소수의 연구참여자를 비확률적으로 모집한 것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뿐만 아니라 각 인식유형별로 소속된 연구참여자의 수는 현실적으로 어떤 유형이 더 많고 적음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김홍규, 2008),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응답 경향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장애대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관점을 돌아보고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의 인식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였으며, 고등교육에서의 통합교육을 위한 실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교수 및 대학종사자들의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대학생의 비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통합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요구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공마리아, 강운주(2010).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17(3), 1-23.
-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교육부.
- 구재선, 김의철(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77-100.
- 김경선, 김동일, 정소라, 이재호, 장세영(2013). 장애·비장애 대학생의 취업준비도 특성 탐색: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3(3), 65-83.
- 김기홍(2006). 장애아(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13(1), 27-48.
- 김명소, 한영석(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미선, 박중휘(2013). 시각장애 대학생의 대학 내 교육복지 지원 경험과 인식. **시각장애연구**, 29(2), 1-22.
- 김미옥(2003).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자아개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5, 138-167.
-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2003).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7(4), 335-357.
- 김수연, 이대식(2011). 그림검사를 활용한 초등학생의 장애인식 특징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2), 363-391.
- 김용욱, 김남진, 광정란(2008).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모델 연구 I: 실태 및 개선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2), 181-202.
- 김자경, 강혜진(2008).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비교.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1(2), 211-225.
- 김진영, 남진열(2005). 장애대학생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인식과 태도 연구. **청소년학연구**, 12(4), 39-58.
- 김현수, 원유미(2000). **Q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홍규(2008). **Q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재국(2008). 장애대학생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특수아동교육연구**, 10(4), 109-225.

- 서보순, 김자경, 신혜정(2014). '장애대학생' 및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다니는 대학'에 관한 비장애대학생들의 메타포(metaphor) 분석. **특수교육**, 13(3), 317-347.
- 석말숙, 강동욱(2005).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171-194.
- 송수지, 김정민(2008).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83-99.
- 이경림, 박재국(2007).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50(1), 1-20.
- 이옥경(2004). 장애대학생의 진로지도와 취업준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3, 169-195.
- 이용, 이주희, 이한나(2011).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연구: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특수교육**, 10(3), 245-268.
- 이은진, 유성경(2011).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083-1115.
- 이정애, 최용용(2010). 장애 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진로포부 비교. **장애와 고용**, 20(2), 55-76.
- 장순옥(2001). 장애인 특례입학 대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5(1), 85-108.
- 정혜영, 서보순(2012).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117-145.
- 조화진, 서영석(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최숙자(2005). **통합학급의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교 일반학생의 수용태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지영(2009).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2571-2589.
- 하태환(2004). **장애학생 이해도 및 통합 학습 경험에 따른 일반 초등학생의 장애 수용도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한경임, 송미승(2011). 장애 남자 대학생 생활 경험의 근거이론적 분석.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54(2), 1-23.
- Berk, L. E. (2009). **생애발달 II: 청소년기에서 후기 성인기까지(제 4판)**. (이옥경, 박영신, 이현진, 김혜리, 정윤정, 김민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출판년도 2007).
- Griffin, M. M., Summer, A. H., McMillan, E. D., Day, T. L., & Hodapp, R. M. (2012). Attitudes toward including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t college.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9(4), 234-239.
- Hergenrather, K. & Rhodes, S. (2007). Exploring undergraduate student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Application of disability social relationship scale.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50(2), 66-75.

- Hughson, E. A., Moodie, S., & Uditsky, B. (2006). *The story of inclusive post secondary education in Alberta: Final research report 2004-2005*.
[Http://www.steps-forward.org](http://www.steps-forward.org).
- Kleinert, H., Jones, M., Sheppard-Jone, K., Harp, B. & Harrison, E. (2012),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going to college? Absolutely!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44(5), 26-35.
- Lance, G. D. (2005). Reflections on inclusion: Integrating the disabled. *Research of Disabilities*, 1(3), 9-13.
- May, C. (2012). An investigation of attitude change in inclusive college classes including young adult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Policy &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9(4), 240-246.

An analysis on awareness types of college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toward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Seo, Bosoon

Dong-Eui University

Park, Jaek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wareness types of college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toward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rough Q-method and find a way to vitalize inclusion in college. Data was collected from 76 students in six colleges in 'B' metropolitan city. Students were asked to rank the level of their agreement with the statements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 QUANL program. As a result, the awareness of the students toward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wa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There were 'Type 1: Recognizing potential power', 'Type 2: Worrying about difficulties', 'Type 3: Focusing on the universality', and 'Type 4: Demanding paternal support'. This study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college students to look back on their beliefs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ed ways to support inclusive setting. On a basis of the results, ways how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inclusion in college were discussed.

Key Words : Awareness toward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wareness of College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Q-method

논문 접수: 2015. 04. 16 심사 시작: 2015. 05. 15 게재 확정: 2015. 06. 05